

부모와 자녀간의 생활양식 · 가족자원 인지에 관한 연구*

- 안성지역 중 · 고 · 대학생과 부모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the perception on the lifestyle and family resources between the adolescent and their parents

한경대학교 생활관리학과
부 교수 이명숙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이정우

Dept. of Home Management, Hankyong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 Myoung Suk Lee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Professor : Jeong Woo L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make a comparison with the lifestyle and level of family resources' perception between the adolescent and their parents.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732 cases including the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302), the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284) and the university student and their parents(146). The SPSS software program and statistics such as frequencies, paired t-tset, factor analysis and Chronbach's α were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for this stud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score of Identity is shown higher to the groups of the parents than the groups of the adolescent.

* 한경대학교 1998년도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2. The group of adolescent have a tendency to lead the fashion and like the Western style, while on the other hand the group of their parent have a tendency to save and be responsible their life.

3. The score of family resources' perception is shown higher to the groups of the parents than the groups of the adolescent.

I. 서론

우리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의 양적 팽창과 다원화, 상업화, 이기주의화의 질적 변화(손승영, 1995)를 겪으면서 급격히 변화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사회변동의 폭이 크고 빠를수록 공동체적 동질성은 점차 약화되는 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갈등 즉, 개인, 단체, 계층, 세대, 지역공동체 등 사회를 구성하는 부분들 사이의 갈등은 심화되며, 특히 세대간의 의식격차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가정내에서의 세대간 문제는 그 양상이 다양하고 또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가정은 혈연으로 유대를 가진 가족들이 의식주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생활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온정이나 사랑에 기반한 정서적 유대와 서로 소속감을 느끼는 연대의식을 가진 공동체이므로 심리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한국사회학회, 1994).

가정내 세대간 문제는 부모에 대한 전적인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청년기에 특히 첨예화되기 쉽다. 왜냐하면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자기실현의 과정에서 독자성과 독립성을 추구하려는 욕구는 그 동안 부모에게 강하게 의존되어 있던 관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년기의 자연스런 생리적, 심리적 변화와는 달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립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통제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실정이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 자녀간 세대 갈등이 구체적으로 표출되는 영역은 사회의식의 차이라기 보다 주로 생활습관의 차이 때문이다. 평소 부모 자녀간에 어떤 문제로 부딪히는가의 질문에 대해 돈 쓰는것, 귀가시간, 옷 입는것, 집안일 돕기,

친구관계, 학업성적, 음주, 말씨, 인사 등이 지적되고 있다. 즉, 두 세대간의 생활경험의 차이는 상호이해를 도모하는데 근원적인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빈곤속에서 성장한 부모 세대의 경우 주로 물질적 부를 인생목표로 추구하는 것에 비해 자녀 세대는 현실생활의 즐거움과 보람을 추구하게 된다(한국사회학회, 1994).

한편, 우리 사회는 20세기 말에 IMF를 맞아 21세기를 구조조정이라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시작하고 있다. 새로운 한 세기를 어떻게 맞이하며, 미래지향적인 삶을 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현재의 구조조정 상황 속에서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로 존속하며 잠재적 적응력을 발휘하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가족 속에서의 세대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 시급히 필요한 작업이며, 특히 세대간의 생활양식 차이 및 가족자원에 대한 인지 차이에 대한 연구는 미래지향적인 삶의 질에 대한 분석의 기초 자료로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세대차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살펴 보면, 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고효정, 1996; 권은정, 1996; 김인순, 1996; 김미애, 1997; 정태권, 1997; 김성연, 1998)과 부모-자녀간 심리적 특성, 갈등 및 양육태도 등에 대한 연구들(김현정, 1995; 이은경, 1995; 정연주, 1996; 김수경, 1996; 공정숙, 1996; 박종화, 1996; 김수연, 1997; 김경신, 1998)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세대간의 심리적 특성과 생활양식 및 가족자원에 대한 인지의 차를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삶의 질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가족자원은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이나 동일한 방식으로 혼합된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

서 자원의 효율적인 생산과 소비는 개개인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다. 즉 개개인의 욕구충족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효과적인 생산, 소비와 배분을 통해 생활만족 및 나아가서 삶의 질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자녀간의 생활양식과 가족자원에 대한 인지 차이를 조사하므로써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 차의 일부분을 밝히고 부모-자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수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세대간의 문제, 갈등을 해소하고 청소년 상담에 도움이 되는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을 둔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자녀 세대의 개념 및 세대간의 과정

1) 부모-자녀 세대의 개념

지금까지 세대 연구가들이 사용해 온 세대의 의미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보면(Kertzer, 1983; 한국사회학편, 재인용)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로 구분하는 것처럼 가계 계승의 원리로서 세대란 말을 사용하는 경우,

둘째, 나이를 먹음에 따라 연령층을 함께 이동하는 동시출생집단(cohort)을 의미하는 경우,

셋째, '청소년 세대'나 '대학생 세대'라고 부를 때처럼 생애주기의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경우,

넷째, '전후 세대'나 '4.19 세대' 등과 같이 어떤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을 총칭하는 경우 등이다.

위의 어떤 경우든 세대란 말은 나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 속에서의 세대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세대간의 과정

세대간의 과정은 가족 영역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부분들 중 하나로서 가족생활의 모든 측면들은 이

과정으로부터 성장해 나오고 이 과정 위에 형성된다.

세대간의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느끼는가,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가, 우리가 세상을 친근한 곳으로 느끼는가 아니면 적대적인 곳으로 느끼는가,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대처해 나가는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우리의 소망, 가치관, 투쟁, 수완있는 능력, 친밀감, 분노, 사랑, 중요 등 인생전반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인간, 재산, 종교, 교육 등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태도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세대간의 과정이 건강할 경우 구속감 없는 결속감, 압박감 없는 친밀감, 자아정체감을 제공하는 등 생산적인 결과를 창출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의식을 갖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반면 병리적일 경우 매우 파괴적인 경향을 띠며, 관계를 왜곡시키고 건강을 해치며,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여러 면에서 저해할 수도 있다(최연실 외 역, 1995).

2. 생활양식

1) 생활양식의 개념

생활양식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요소는 가족이다. 가족은 인간 생명과 노동력의 생산·재생산 단위이다. 생명과 노동력은 개개인에 맡겨져 있으나 인간종(種)의 세대적 재생산이 인간 생활과 인간 사회 존속의 기저를 이루는 한, 남녀 혼인관계와 친자관계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가족은 인간 생명과 노동력의 생산 및 재생산을 위한 기본 단위로 존속한다. 둘째 요소는 물질·정신적 생활수단이다. 생활수단은 인간생명과 노동력으로 질적 변화한다. 생산수단이 노동 대상과 노동수단으로 구성되는 것처럼 생활수단은 소비 대상과 소비수단으로 구성된다. 식생활수단의 예를 들면 곡물과 야채, 어육류 등은 소비 대상이며, 그것들을 삶는데 사용되는 납비와 솥은 소비수단이다. 셋째 요소는 인간 자신의 소비 서비스 노동이다. 소비 서비스

노동은 일반적으로 소비 수단을 사용해 소비 대상을 인간의 직접적인 소비와 연결시키든가 혹은 거기에 적당한 가공과 보관, 전달을 행하는 노동이다. 소비 서비스 노동은 생활 수단의 소비를 매개해, 생활수단을 인간의 생명과 노동력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생활양식 개념을 간단히 규정하면, 생활양식은 가족과 생활 수단의 결합 양식으로 정의될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서는 가족과 생활 수단 및 그것들의 결합을 매개하는 소비 서비스 노동이 생활양식의 개념을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백육인 역, 35-36).

사람들은 원하고 기대하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생활양식의 선택과 실행을 통해 나타낸다. 생활양식은 개인적 관계를 조직하고 자원을 사용하며 사회적 자연적 환경과 관계를 맺는 지속적인 방식이다. 생활양식은 자신이 생존하는 환경과 자원의 사용을 통해 만들어 내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생활단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역할과 관계를 포함한다. Paolucci는 가족들은 생활양식을 형성하게 되는 일상적 결정과 행동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생활양식의 개념을 설명했다(문숙재·김정옥 공역, 15).

“가족구성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미시결정이라 불리는 비교적 작은 일련의 결정을 한다. 미시결정에는 특정한 일상생활의 규칙을 채택하고 어떤 종류의 음식과 물질을 구입할지, 어떤 종류의 교통수단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이런 결정들이 모여 가족 생활양식을 형성하며 이는 사회의 좀 더 큰 거시적 결정의 일부가 된다.”

2) 생활양식의 측정

생활양식에 대한 개념은 이미 1960년대부터 사이코그래픽스(psychographics)라는 말과 더불어 소비자 행동과 관련하여 사용되어 오고 있다. 즉 생활양식이란 사람들이 살아가고 돈과 시간을 소비하는 전반적인 양식으로 그것이 특히 마케팅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그 분석을 통해 각 시장구획의 차이점을 밝힐 수가 있음은 물론 그 사회 전체의 행동패턴을 알 수

가 있기 때문이다(최병룡, 431). 그러나 생활양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가치·태도·신념 및 외부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변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마케터는 표적 소비자들의 생활양식을 수시로 분석평가해야 하는데 이에 유용한 측정수단이 사이코그래픽스이다. 대부분의 사이코그래픽조사는 AIO(activities; 소비자 혹은 가족이 어떻게 시간을 소비하는가, interests; 소비자 혹은 가족이 좋아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opinions; 소비자는 각종의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의 측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AIO변수로 지칭된다.

3. 가족자원

자원이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로서 “인간의 사회생활을 유지·향상하기 위한 원천으로 작용하는 모든 사물”로 정의된다. 즉 인간이 자연환경에 작용하여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자산 혹은 어떤 일에 이용되는 인적·물적 근원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이나 동일한 방식으로 혼합된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Rice & Tucker, 1986).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인 생산과 소비는 개개인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있다. 즉 사회의 구성요소는 개인이며, 최소단위는 가족이다. 가족은 그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욕구충족과 만족, 나아가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체계이다. 그러므로 환경변화에 따른 자원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별가정의 생활을 바람직하게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가족자원을 인적자원, 경제자원, 환경자원으로 나누고 이러한 자원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이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가족자원필요도, 가족자원제약성, 가족자원만족도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고 더욱이 부모-자녀간의 인지 정도를 조사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므로 전반적인 가족자원과 이에 대한 인지 정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근거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1) 인적 자원

자원은 생산의 투입요소로서 가족체계에서도 가정 생활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은 이미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었다. 한편 가족자원과 가족스트레스를 연구한 김양희 · 전세경(1989)의 연구에서도 가족자원량과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즉 가족자원량이 많을수록 가족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자원중에서도 개인심리적 자원 및 가족체계자원과 같은 사회심리적 자원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 있다. 한편, 육선화 · 정민자(1984)의 연구에서는 교육과 가족수입이 높으면 사회심리적 가족자원량은 많아진다고 하였다. 장윤옥 · 정서린(1997, 141-153)의 연구에서도 가정자원 적정도지각이 높은 집단이 중간 정도인 집단보다,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이 중간 정도인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인적자원관리, 물적자원관리, 환경적자원관리의 세영역 모두에서 스트레스가 더 낮았다. 즉, 주부가 가정내부의 자원 뿐만 아니라 가정외부의 환경적 자원도 자신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환경적 자원을 가정자원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수준을 높이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고, 스트레스를 통제하기 위해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가 감소될 것이며 가정자원관리 활동 역시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서리나 · 한경미(1994, 68-79)는 주부가 가족자원을 적절하게 지각하는 것은 주부의 가정관리수행을 향상시키는 요소이고, 관리수행의 거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특히 지식과 기술자원에 대한 적정지각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2) 경제자원

경제자원은 생활만족이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 변인이다. 따라서 빈곤선의 논의가 아닌 경우 객관적인 자원량과 주관적인 자원량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동숙 · 이정우(1992)는 실제로 그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보다는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지하는지가 가정자원관리 행동유형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가정

생활만족도의 증진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뿐 아니라 물적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미래사회에서의 가정자원관리가 좀 더 다양하고 어려워짐을 가정할 때 인적자원 중 지식 및 능력의 함양이 필요하며 동시에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금전자원의 증대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경숙 · 이정우(1995, 1-11) 역시 가정관리능력과 가정생활만족에 공통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관적으로 인지한 자원이므로 이들 자원을 개발하고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사회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정우 · 이명숙(1995, 11-21)의 연구에서도 자원제약은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목표설정, 수행표준, 목표달성에 모두 부적 영향을 주므로 자원제약을 많이 받을수록 목표설정이 낮고, 수행표준도 낮으며, 결과적으로 목표달성도 낮다고 하였다.

3) 환경자원

환경자원은 물적 자원의 일부인 자연물과 생산과정을 거친 재화 및 에너지 등에 초점을 맞춘다(임정빈 외, 1994). 이와 같은 광역 환경은 가정의 통제력이 적다는 이유로 가정의 자원관리 측면에서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개별 가정은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일 뿐 아니라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주체자로서, 중요한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광역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근접환경을 중심으로 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대생의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행동을 연구한 노채영외 2인(1991, 49-62)의 연구에 의하면,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의식개선에 중점을 둔 소비자교육의 적극적인 활성화가 바람직한 소비자행동유도에 필요하다고 하였다. 서정희(1991, 93-101)는 환경문제에 관한 소비자기능의 수행수준이 높지않으므로 환경오염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지표를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고양도 중요하나 실천이 더욱 중요하므로 환경문제에 관한 소비자기능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인

교육을 하도록 하며, 사회인구적 변수보다는 생활양식의 영향력이 훨씬크므로 소비자들이 생활양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엄하정(1993, 169-181)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바람직한 가치 정립, 즉 인간과 환경과의 유기적 긴밀성에 대한 가치, 심리적 행복에 중점을 두는 가치, 어느정도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명희·정주원(1995, 22-34)도 재활용 행동 여부는 사회적 성향이 강한 집단에 의해 가장 잘 설명, 환경의식이 강할수록 재활용 행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기춘외 2인(1996, 227-239), 유두련외 2인(1996, 197-210) 등은 지속적인 환경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환경의식적 행동수행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환경중에서도 지역사회환경자원에 강조점을 둔 차성란·문숙재(1994, 220-232)는 근접환경자원은 새로운 대안적인 자원을 제공하거나 가정생활유지에 중요한 자원을 제공해줄 수 있는데 고소득층을 위한 대안적인 자원의 개발은 작업처리생산활동들을 시장 대체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인간자원생산을 위해 의존할 수 있는 근접환경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가정을 위한 무료의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시설 및 서비스개발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수준도 낮기 때문에 관리경제생활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상담시설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차성란(1997, 45-58)은 지역사회자원인지인 경우에도 가정이 지니고 있는 가정자원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목적은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과 부모간의 심리적 특성(내외통제성, 자아정체감), 생활양식 및 가족자원 인지도(자원필요도, 자원제약성, 자원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고등학생과 부모간의 심리적 특성, 생활양식 및 가족자원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대학생과 부모간의 심리적 특성, 생활양식 및 가족자원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도구

1) 심리적 특성 변인인 내외통제성(locus of control)은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나 믿음'으로 정의되며, 내적통제성향과 외적통제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연구에서는 Rotter(1971)가 개발하고, 오해섭(1998)이 사용한 검사도구 중 11문항을 수정하여 10문항을 재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42$ 였다.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외적통제성향을 보이므로써 자신의 운명을 외적인 힘, 행운 등 자기 외적인 요인에 두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점수가 2에 가까울수록 자신의 운명이나 행동이 자신에 의해 결정되며 그들 자신의 능력이 개인의 통제 내에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자아정체감은 Erikson이 정의한 것으로서 그는 심리적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속한 사회 내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며 인간의 심리적 건강은 바로 정체감 형성에 달려있다고 보았다(김영애, 1996). 이 연구에서는 Ochse와 Plug(1986)가 개발한 19문항 중 Erikson의 발달단계에 따라 2문항씩 16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 이었다.

2) 생활양식 척도는 선행연구(이차욱, 1983; 최남숙, 1993; 공보처, 1996)를 기초로 44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유행지향성($\alpha = .84$), 절약추구성($\alpha = .63$), 사회활동성($\alpha = .65$), 생활책임성($\alpha = .54$), 서양문화추구성($\alpha = .53$), 자기충실성($\alpha = .49$), 신세대가치성($\alpha = .52$) 등 7개의 경향성으로 분류되었다.

3) 가족자원 척도는 Rice와 Tucker(1986)가 분류한 인적·경제적·환경적 자원의 세 영역에서 대표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자원을 선정하여, 조사대상의 가정생활에서 그들 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그들 자원들에 대해서 현재 얼마나 만족한지의 여부를 묻는 3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는 인적자원필요도 $\alpha = .76$, 경제자원필요도 $\alpha = .78$, 환경자원필요도

$\alpha = .80$, 인적자원만족도 $\alpha = .77$, 경제자원만족도 $\alpha = .78$, 환경자원만족도 $\alpha = .77$ 이었다. 자원제약성은 환경자원인 경우 영역이 매우 넓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국한하여 경제자원제약성 10문항($\alpha = .90$), 인적자원제약성 10문항($\alpha = .88$)을 사용하였다.

3. 조사대상

세대간의 생활양식 및 가족자원인지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얻기 위하여 안성시 소재 남자중·고등학교, 여자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500쌍의 청소년기 자녀와 그들의 부모를 무작위로 표집하였다.

조사는 '99. 5월 - 6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총 500쌍 10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부모와 자녀를 쌍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미수거 및 부실기재된 자료가 많아 총 366쌍 732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4.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였고,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위해 Chronbach's α 와 요인분석을, 세대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하였다.

IV. 연구결과분석

1. 중학생과 부모간의 심리적 특성, 생활양식 및 가족자원인지

1) 심리적 특성

내외통제성에서는 중학생과 부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자아정체성에서는 여중생 집단과 남중생집단 모두에서 부모집단의 자아정체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 집단이 아직 청년기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		학생(%)	부모		
			부	모	계(%)
중학생	여학생	88(58.0)	27	59	86(57.7)
	남학생	63(42.0)	18	45	63(42.3)
	소계	151(100)	45	104	149(100)
고등학생	여학생	74(52.1)	26	44	70(52.6)
	남학생	68(47.9)	32	31	63(47.4)
	소계	142(100)	58	75	133(100)
대학생	여학생	40(54.8)	15	24	39(54.2)
	남학생	33(45.2)	22	11	33(45.8)
	소계	73(100)	37	35	72(100)
합 계		366(100)	140	214	354(100)

* 무응답으로 부모-자녀의 수가 일치하지 않음.

<표 2> 중학생과 부모간의 심리적 특성

변 인	여자 중학생과 부모			남자 중학생과 부모		
	여중생	부모	t	남중생	부모	t
내외통제성	1.95	1.72	1.03	1.77	1.74	1.12
자아정체성	3.23	3.43	3.49***	3.35	3.55	2.66**

* $p < .05$ ** $p < .01$ *** $p < .001$

초기로서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 생활양식

생활양식에 있어서는 여중생 집단이 유행추구성, 서양문화추구성, 신세대지향성이 높았고, 부모 집단은 절약추구성, 책임지향성이 높았다. 남중생은 서양문화추구성, 신세대지향성이 높았고, 부모 집단은 여학생 부모와 마찬가지로 절약추구성, 책임지향성이 높았다. 따라서 중학생과 부모간에는 서양문화추구 및 신세대지향 대 절약추구 및 책임지향으로 뚜렷한 생활양식의 차이를 살펴 볼 수 있었으며, 또한 여중생이 남

중생보다는 유행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가족자원인지

가족자원필요도에 있어서 부모 집단이 자녀에 비해 자원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 집단이 자녀에 비해 경제자원의 필요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자원제약에 있어서도 동일한 결과로서 부모가 자녀에 비해 경제자원의 제약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부양자인 부모 집단이 피부양자인 자녀 집단보다 가정관리 대상인 자원에 대한 요구가 보다 절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가족자원만족

〈표 3〉 중학생과 부모간의 생활양식

생활양식	여자 중학생과 부모			남자 중학생과 부모		
	여중생	부모	t	남중생	부모	t
유행추구성	3.19	2.50	5.75***	2.76	2.51	1.80
절약지향성	3.23	3.73	4.46***	3.47	3.82	3.16**
사회활동성	2.98	2.93	.51	2.96	3.06	.68
생활책임성	3.41	4.04	5.70***	3.73	4.07	3.54***
서양문화추구성	3.42	2.83	5.16***	3.26	2.75	3.84***
자기충실성	3.33	3.18	1.37	3.44	3.37	.61
신세대가치성	3.52	2.71	7.67***	3.32	2.65	5.47***

* p<.05 **p<.01 ***p<.001

〈표 4〉 중학생과 부모간의 가족자원인지

가족자원		여자 중학생과 부모			남자 중학생과 부모		
		여중생	부모	t	남중생	부모	t
가족 자원 필요도	인적자원	4.37	4.50	1.75	4.40	4.55	2.09*
	경제자원	3.91	4.21	3.19**	3.89	4.22	2.70**
	환경자원	4.47	4.50	.47	4.46	4.55	.95
	계	4.25	4.41	2.26*	4.25	4.44	2.30*
가족 자원 제약	경제자원	2.67	3.09	4.78***	2.54	2.95	3.22***
	인적자원	2.96	2.89	.61	2.73	2.78	.33
	계	2.86	2.96	1.23	2.67	2.84	1.27
가족 자원 만족도	인적자원	3.48	3.42	.69	3.61	3.62	.44
	경제자원	3.31	3.22	.93	3.55	3.34	1.87
	환경자원	3.15	3.19	.30	3.46	3.38	.65
	계	3.32	3.28	.48	3.56	3.45	1.20

*p<.05 **p<.01 ***p<.001

도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만족의 정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고등학생과 부모간의 심리적 특성, 생활양식 및 가족자원인지

1) 심리적 특성

남자고등학생 집단에서 부모보다 남자 고등학생이 외적통제지향적이며, 자아정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집단이 부모와 좀 더 세대차가 있을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면에 자녀들은 유행 및 서양문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여고생이 남고생에 비해 사회활동을 좀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가족자원인지

가족자원필요도에서는 여고생 집단이 부모에 비해 인적자원의 필요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가족자원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자원제약에서는 남고생 집단의 부모가 경제자원제약을 보다 크게 인지하였다. 즉 고등학생과 그의 부모간에는 가족자원에 대한 인지 차이가

〈표 5〉 고등학생과 부모간의 심리적 특성

변 인	여자 고등학생과 부모			남자 고등학생과 부모		
	여고생	부모	t	남고생	부모	t
내외통제성	1.74	1.74	.06	1.65	1.73	2.26*
자아정체성	3.21	3.32	1.60	3.15	3.41	3.76***

* p<.05 ** p<.01 *** p<.001

2) 생활양식

여고생 집단은 유행추구성, 사회활동성, 서양문화추구성, 높은 반면, 부모 집단은 절약추구성이 높았다. 남고생은 유행추구성, 서양문화추구성, 신세대지향성이 높은 반면, 부모 집단은 절약추구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중학생과 부모간의 경향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즉 부모는 자녀에 비해 절약추구적인 생활양식을 지향하는 반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3. 대학생과 부모간의 심리적 특성, 생활양식 및 가족자원인지

1) 심리적 특성

여자 대학생이 그들의 부모보다 자아정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대학생 집단에서는 통

〈표 6〉 고등학생과 부모의 생활양식

생 활 양 식	여자 고등학생과 부모			남자 고등학생과 부모		
	여고생	부모	t	남고생	부모	t
유행추구성	2.94	2.51	3.90***	2.91	2.51	2.97**
절약지향성	3.17	3.58	3.44***	3.21	3.69	4.42***
사회활동성	3.07	2.80	2.19*	2.91	2.93	.11
생활책임성	3.97	4.05	.71	3.75	3.90	.47
서양문화추구성	3.14	2.68	3.20**	3.08	2.68	3.22**
자기충실성	3.33	3.20	1.07	3.31	3.01	2.93**
신세대가치성	2.99	2.993.19	1.72	3.19	2.71	3.66***

* p<.05 ** p<.01 *** p<.001

〈표 7〉 고등학생과 부모의 가족자원인지

가족 자원		여자 고등학생과 부모			남자 고등학생과 부모		
		여고생	부모	t	부모	자녀	t
가족 자원 필요도	인적자원	4.59	4.44	2.37*	4.28	4.35	.86
	경제자원	3.86	3.88	.17	3.73	3.91	1.88
	환경자원	4.52	4.40	1.49	4.42	4.45	.37
	계	4.33	4.24	1.33	4.14	4.23	1.34
가족 자원 제약	경제자원	2.52	2.70	1.69	2.69	3.17	4.23***
	인적자원	2.90	2.82	.78	3.09	3.08	.12
	계	2.78	2.78	.03	2.96	3.11	1.45
가족 자원 만족도	인적자원	3.30	3.35	.77	3.17	3.31	1.58
	경제자원	3.28	3.19	.87	3.30	3.21	.83
	환경자원	3.14	3.25	1.36	3.30	3.15	1.19
	계	3.24	3.27	.43	3.26	3.23	.36

* p<.05 ** p<.01 *** p<.001

〈표 8〉 대학생과 부모간의 심리적 특성

변 인	여자 대학생과 부모			남자 대학생과 부모		
	여대생	부모	t	남대생	부모	t
내외통제성	1.70	1.65	.98	1.73	1.77	.83
자아정체성	3.12	3.37	3.17**	3.40	3.53	1.04

* p<.05 ** p<.01 *** p<.001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 대학생들 중에서 정체감 획득 상태에 있는 여성들은 어머니와 양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어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이 딸에게 규칙을 부과하고 규칙에 대한 일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분리하려는 딸과 어머니가 갈등을 일으키기 쉽다는 연구 결과(Josselson, 1987, 장휘숙, 1999, 재인용)를 참고로 할 때, 이러한 갈등이 여자 대학생과 부모간의 정체감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2) 생활양식

여대생은 유행추구 및 신세대지향의 생활양식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반면에 부모세대는 절약추구성을 높게 지향하였다. 그러나 남대생과 부모간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가족자원인지에서 보여 준 결과와 마찬가지로 청년 후기보다는 청년 초기에 부모와의 생활양식이 더 뚜렷한 차이를 나타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3) 가족자원인지

가족자원필요도는 여대생이 부모에 비해 환경자원 필요성을 크게 인지하였으며, 가족자원만족도 영역에서는 대학생과 부모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족자원제약 영역에서는 여대생 부모 집단이 자녀보다 경제자원의 제약을 크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과 부모간의 가족자원 인지차이, 고등학생과 부모간의 가족자원 인지차이에 비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청소년 초기 보다는

〈표 9〉 대학생과 부모의 생활양식

생활양식	여자 대학생과 부모			남자 대학생과 부모		
	여대생	부모	t	남대생	부모	t
유행지향성	3.05	2.33	4.27***	2.96	2.82	.78
절약추구성	3.00	3.76	5.19***	3.67	3.85	1.32
사회활동성	3.01	2.88	.83	3.15	3.35	1.16
생활책임성	3.77	3.90	.87	4.02	4.04	.17
서양문화추구성	2.97	2.61	2.04*	2.98	2.71	1.29
자기충실성	3.38	2.89	3.49***	3.50	3.21	1.78
신세대가치성	3.07	2.55	3.35**	2.93	2.933.18	1.26

* p<.05 ** p<.01 *** p<.001

〈표 10〉 대학생과 부모의 가족자원인지

가족자원		여자 대학생과 부모			남자 대학생과 부모		
		여대생	부모	t	남대생	부모	t
가족 자원 필요도	인적자원	4.47	4.32	1.50	4.54	4.44	1.24
	경제자원	3.91	3.94	.24	4.05	4.12	.52
	환경자원	4.53	4.33	1.97*	4.44	4.41	.17
	계	4.30	4.19	1.25	4.34	4.32	.24
가족 자원 제약	경제자원	2.56	2.92	3.23**	2.29	2.55	1.53
	인적자원	2.75	2.84	.67	2.46	2.56	.62
	계	2.68	2.87	1.58	2.40	2.96	1.09
가족 자원 만족도	인적자원	3.17	3.33	1.24	3.32	3.49	1.21
	경제자원	3.11	3.21	.80	3.25	3.41	1.00
	환경자원	2.98	3.16	1.27	3.47	3.50	.21
	계	3.08	3.23	1.48	3.35	3.47	.99

* p<.05 ** p<.01 *** p<.001

청소년 후기가 될수록 부모와의 가족자원인지 차이가 적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와 청년기 자녀간의 생활양식 및 가족자원인지 차이를 조사분석하므로써 세대간의 문제, 갈등 및 청소년 상담과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자료수집은 안성시 거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과 그들의 부모 366쌍, 총 73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1999년 5월-6월에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paired t-test를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특성 중 자아정체성에 있어서 부모 집단과 자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중학생 집단인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이 모두 부모 집단에 비해 자아정체성이 낮았다. 즉 부모는 청년 초기에 위치에 있는 자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바람직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

둘째, 생활양식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녀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부모는 절약추구성파 책임지향성의 생활양식을 높게 인지한 반면, 자녀세대는 유행추구성, 서양문화추구성, 신세대추구성의 생활양식 지향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생보다는 중학생으로 내려 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청년 후기보다 청년 초기에서 부모-자녀간의 의식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셋째, 가족자원의 필요, 제약 및 만족 측면에서의 세대간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모세대의 경제자원 필요성 및 제약성이 자녀 보다는 크게 인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경영의 주체자로서 부모의 책임성이 보다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자녀 간의 이해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생활양식은 자신이 생존하는 환경과 자원의 사용을 통해 만들어 내는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생활단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역할과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양식 및 가족자원 인지 차이는 세대간 갈등의 주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빠른 사회적 변화는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부모들은 자신의 성장 시기와는 극적으로 다른 환경 조건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세대 간의 가치 및 생활양식 이해와 가족을 위한 합리적인 생활설계 및 가정관리에 대한 교육이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 기관을 통해 대상별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학교, 지역사회 및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덧붙여 세대간의 생활양식과 가족자원에 대한 보다 정교한 도구 개발과 다양한 대상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고효정(1996), 부모와 청년기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결혼관함의, 서울대 석사 학위논문.
- 2) 공보처(199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 3) 공정숙(1996), 부모의 사회적 배경·지각된 통제양식과 자녀의 내외통제성 및 자아개념과의 관계,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4) 권은정(1996),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만족도와 청소년의 인성특성,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 5) 김경숙·이정우(1995), 취업주부의 객관적 주관적 자원, 가정관리능력 및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11.
- 6) 김경신(1998),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가치관과 세대간 유사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43-65.
- 7) 김미애(199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가족체계 특성과 청소년의 성격특성,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 8) 김성연(199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친밀감 및 신뢰감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9) 김수경(1996),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격요인과의 관계,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 10) 김수연(1997),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관련된 변인,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11) 김양희·전세경(1989),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 12) 김영애(1996), 심격심리학, 하나의학사.
- 13) 김인순(1996),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의 형태와 자녀의 우울 상태에 관한 연구, 공주전문대 논문집 23, 195-204.
- 14) 김현정(1995), 생활문제 지각에 나타난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세대차,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15) 노채영의 2인(1991),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49-62.
- 16) 문숙재·김정옥 역(1990), 가정자원관리, 동명사.
- 17) 박명희·정주원(1995), 소비자 처분행동 유형과 영향 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22-34.
- 18) 박종화(1996), 정상·비행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

- 도와 통제부위신념의 차이에 대한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 19) 배옥인 역(1994), *생활양식론*, 민글
 - 20) 서리나 · 한경미(1994), 주부의 가족자원적정지각과 대상별 가정관리수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68-79.
 - 21) 서정희(1991), 환경문제에 관한 소비자기능과 관련변수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93-101.
 - 22) 손승영(1996), 한국사회의 변화와 가족,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 23) 엄하정(1993), 환경오염 감소와 관련된 주부의 관리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69-181.
 - 24) 오해섭(1998), 청소년의 환경책임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25) 옥선화 · 정민자(1984),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가족자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 26) 유두련 외 2인(1996), 환경교육이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97-210.
 - 27) 이기춘 외 2인(1996),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행동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호응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227-239.
 - 28) 이은경(1995),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29) 이정우 · 이명숙(1995), 도시 주부의 가치 · 목표 · 표준 및 가정관리목표달성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11-21.
 - 30) 이차옥(1983), 우리나라 도시 거주 가정주부의 Life Style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31) 임정빈 외 4인(1994), *가정관리학*, 학지사.
 - 32) 장윤옥 · 정서린(1997), 가정자원적정도 지각과 통제소재가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141-153.
 - 33) 장휘숙(1999), *청년심리학*, 학지사, 209.
 - 34) 정연주(1996),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내외적 통제성간의 관계,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35) 정태권(1997),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가족기능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36) 차성란 · 문숙재(1994), 가정생산의 분리가능성의 식과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활행동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220-232.
 - 37) 차성란(1997), 농촌주부의 사회관계망, 자원교환, 지역사회자원인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45-58.
 - 38) 최남숙(1993), 서울시 주부들의 환경교육과 환경보전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39) 최동숙 · 이정우(1992), 가정자원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63-178.
 - 40) 최병룡(1992), *소비자행동론*, 박영사.
 - 41) 최연실 외 역(1995), *새로보는 가족관계학*, 도서출판 하우.
 - 42) 한국사회학회(1994),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나남.
 - 43) Olson D.H., McCubbin, H.I., Barnes, H.L., Larsen A.S., Muxen, M.J. & Wilson, M.A.(1983), *Families :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 sage pub.
 - 44) Rice, A.S., & Tucker, S.M.(1986), *Family life management 6th*, N.Y. : Macmillan Pub.